DOI: https://doi.org/10.28977/jbtr.2001.8.9.97

말씀과 삶의 조화:『러닝 바이블 - 현대인을 위한 영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소기천*

새롭게 번역된 성경을 손에 쥘 때마다, 필자의 마음은 높은 하늘의 흰 구름 위로 날아오르는 느낌이 든다. 눈이 상쾌해지고 코끝에 새 책 냄새가 전달되면서 마음속까지 시원해진다.『러닝 바이블』[1]은 뉴욕(New York)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국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가 1995년에 번역을 완료한 본문에 2000년에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해설과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포함시켜서 총천연색으로 출간한 현대판 영어 성경이다.『러닝 바이블』은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현대인을 염두에 두고 편찬해 낸 성경이다. 특히 초신자들과 청소년들과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편찬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영어번역으로 현대인 앞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성경이다.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만큼 이 책은 성경의 문외한들에게 흥미를 불러 일으켜 줄 것이라 확신한다.

이러한 사실은 신구약성경의 약어표를 한 눈에 보여주고 있는 목차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성경이 약어표를 구약성경의 첫 책인「창세기」부터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책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그러나『러닝 바이블』은 약어표에서 영어 철자의 순서대로 신구약성경을 나열하여「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하여「스바냐」로 끝을 맺고 있다. 이러한 영어 철자 순서에 입각한 약어표는 신구약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초신자들이나 심지어 불신자에게 아주 친숙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미국성서공회의 따뜻한 배려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러닝 바이블』이 현대적인 번역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어번역 성경의 최고의 권위라고 할 수 있는 1611년에 발간된 킹 제임스 역본(King James Version)의 정신과 형식을 그대로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러닝 바이블』은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철저한 킹 제임스 역본의 정신과 신앙고백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지난 120여년 동안 한국교회는 눈부신 성장을 계속해 왔는데, 앞으로 대한성서공회가 한국인의 손에 의한 성경번역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성경 본문을 한글로 세상에 내놓게 될 날이 다시 올 것을 기대하면서, 필자는『러닝 바이블』과 같이 영감에 넘치는 해설과 유익한 정보들을 담은 성경을 한국인의 손으로 세상에 내놓을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 글을 쓴다.

1. 번역에 대하여

현대어 번역 성경의 특징이 '쉬운 번역'에 있다고 말한다면,『러닝 바이블』은 그 특징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성경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무리 쉽게 번역을 하여도 성경은 역시 어렵다는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신약학, 목사.

1) 『The Learning Bible: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King James Version**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Happy the destitute in Spirit. **The Emphasized New Testament**	Blessed—happy, to be envied, and spiritually prosperous [that is, with life-joy and satisfaction in God's favor and salvation, regardless of their outward conditions]—are the poor in spirit (the humble; rating themselves insignificant). **The Amplified New Testament**
... those who feel their spiritual poverty. **The Berkely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Happy are those who know they are spiritually poor. **Good News Study Bible**	God Blesses those people who depend only on him.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통념이 있는데,『러닝 바이블』은 우선 외형적으로 총천연색으로 책형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과 도표와 지도와 그림을 삽입하고 있어서, 성경이 지니고 있는 부담감을 독자에게 상당 부분 덜어주고 있다. 문체에 있어서도 아주 쉽고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읽어도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러닝 바이블』은 아주 쉬운 번역 성경임이 틀림 없다.

성경 역에 있어서 언제나 대립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직역(直譯)과 의역(意譯)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러닝 바이블』은 의역 곧 '풀어쓰기'를 원칙으로 하여 출간된 성경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신약성경이 원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영어와는 그 언어적 형식과 구성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헬라어 본문에서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 본문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될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직역이 지니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의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의역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본문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미로부터 상당히 멀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직역과 의역 사이에서 번역자는 긴장감을 고려하여 적절한 번역을 제시해야 할 지혜를 가져야 한다.

필자는『러닝 바이블』이 의역을 한 본문의 경우를 마태복음 5장 3절을 예로 들어서 다음과 같이 도표로 만들어 보았다.

이상의 번역본들을 비교해 볼 때에,『킹제임스 역본』이 직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마지막에 인용한『러닝 바이블』을 포함한 다른 번역본들은 모두 의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의역이 독자들에게 쉬운 번역으로 다가오는 것은 오늘날의 성경 번역의 일반적인 추세라고 말할 수 있다.

2. 책의 구조에 대하여

2.1. 신약성경과 지리

흔히 성경을 읽을 때, 팔레스타인의 지리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독자들이 많다. 『러닝 바이블』은 이러한 궁금증을 철저하게 해결해 주고 있는 성경이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리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을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림과 총천연색 사진을 곁들여 가면서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흥미로운 자료들을 통해서, 독자는 당대의 건축 구조와 기후와 지형과 풍습과 전통과 예술과 종교와 문화와 삶의 방식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성경의 환경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는 독자에게 성서지리에 대한 신선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고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러닝 바이블』은 책의 마지막에 방대한 지도(2364-2379쪽)를 총천연색으로 그려 놓았을 뿐만 아니라, 각종 행로를 상세하게 첨부해 놓았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성서지리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을 전달해주고 있다.

2.2. 신약성경의 사람들

초신자들이나 청소년들이 신약성경을 읽을 때, 낯선 인물들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성서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진다. 『러닝 바이블』은, 거의 모든 신약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줌으로써, 이러한 궁금증을 상당 부분 해소하여 주고 있다. 그들 가운데 유대교 종파에 해당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열심당(젤롯)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제자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천사들이나 예언자들의 이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다.

특히 신약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복음서마다 다르게 묘사되어 있는 제자들의 명단을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설명을 해준 것(1758쪽)과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1996쪽)과 이방인들에 대한 설명(2033쪽)과 헬라와 로마의 신들에 관한 이름과 그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2042쪽)과 각각의 신약성경 기자들에 대한 설명은 아주 유용한 정보이다.

2.3. 신약성경에 나타나 있는 동식물들

동물학자나 식물학자가 아니더라도 신약성경의 세계에 등장하는 동식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러닝 바이블』은 이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는데,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나라에 온 박사들이 몰약을 예물로 드린 것을 비롯하여, 박하와 운향과 채소에 이르기까지, 여우와 늑대 등의 동식물들을 포함, 이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그림과 사진인데, 신약성경을 읽어 나가는 독자들에게 충분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정보라고 확신한다.

그 가운데 흥미로운 그림은 유대 포도원 전경(1784쪽)과 나귀가 짐을 운반하는 모습(1786쪽)과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모습과 물고기들(1816쪽)의 그림은 실제적으로 독자들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하다.

2.4. 신약시대의 역사와 문화

성서고고학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성경 본문이 증거하는 내용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고고학적 발굴물들은 성서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에 대해서 폭 넓은 배경지식을 전해 주고 있지만, 각종 발굴물들을 해석하여 성경 본문과의 상호 비교 속에서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 만큼, 우리는 팔레스틴의 지리와 역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경 본문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들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 간혹 복음서와 관련된 고고학적 발굴물의 빈약함을 절대시하여 예수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는 시도들도 있었지만, 이는 발굴물의 제한성을 인식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학자들의 옅은 판단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성서고고학은 고고학적 발굴물들을 통해서 신약성경의 말씀과 행동의 역사성을 결정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으며, 갈릴리를 중심으로 전개된 예수의 공생애에 대해서 많은 역사적 근거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물론, 역사적 발굴물들이 신약성경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성서고고학은 성서본문을 당시의 정치경제적 혹은 사회문화적 틀 속에서 관찰하게 함으로써 신약성경에 역사적 객관성을 부여해주는 효과를 낳는다.

『러닝 바이블』은 오늘날의 고고학적 발굴을 기초로 신약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적 활용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성경이다. 역사적 예수의 일차적인 자료들로서 우리는 신약성경의 복음서들과 각종 외경의 복음서들과 당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들을 꼽을 수 있지만, 고고학적 발굴물들은 나사렛 예수를 갈릴리의 가난한 농부 출신으로 입증해 주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예를 들면, 세포리스와 디베리아는 신약성경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도시들이지만, 당대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곳이었음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입증되었다. 왜냐하면, 이들 도시들은 로마가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건설한 도시들이었고, 조세를 거두고 군인들을 주둔시키고 로마가 건설한 길을 따라서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던 도시들이었기 때문이다.

『러닝 바이블』은 이런 도시들에 대한 발굴장면과 복원 사진이나 그림을 소개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역사적인 사건을 시대별로 요약한 도표(2360-2363쪽)와 상상하면서 그린 후대의 성화를 동원하여, 당시의 문화와 역사에 빈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에게 참신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 가운데서, 두 마리의 소가 밭을 가는 장면(1715쪽)과 양모로 실을 만들고 옷을 짜는 장면(1717쪽)과 포도즙을 짜는 모습(1950쪽)과 빵을 굽는 모습(1963쪽)과 예수의 십자가 처형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1808쪽)은 독자들에게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설득력이 있게 재현해 준다. 그리고 당대의 거주문화라든지 일상생활 속에 사용하던 동전들과 갖가지 화상들은 독자들을 구체적인 신약성경의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2.5. 중요 개념들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언어를 떠나서는 인간이 사고를 전개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러닝 바이블』은 신약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서 중요 개념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때때로 그것들은 작은 논문의 형식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독자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책의 마지막 부분(2380-2382쪽)에 목차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주고 있다.

중요한 개념 설명 가운데에서, 유대적 배경에서 형성된 할례(2158쪽)라든지 장례문화(1896쪽)와 같은, 유대적 특성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고 있으며, 성령(1987쪽)

과 세례(1874쪽)와 하나님의 아들(1947쪽)과 인자(1754쪽)와 구원(1923쪽)과 재림(2184쪽)과 같은 신학적 문제들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더욱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도표(1720쪽)와 신구약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는 기적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한 눈에 보여주는 도표(1726-1727쪽)는 아주 유용하다.

2.6. 관주 성구들

성경을 읽을 때, 다른 관련 구절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독자들이 많다. 이 점에 있어서『러닝 바이블』은 방대한 관주 성구들을 편리하게 제공해 주고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신약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약성경의 인용이 주로 70인역본(LXX)에 의지해 있는데, 본 성경은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혀 주고 있어서 독자들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있다.

『러닝 바이블』의 관주 성구들은 복음서의 서로 유사한 구절들을 모아놓았으며 서신의 유사한 구절들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모아놓았기 때문에, 독자들이 그 전승의 전개 과정을 추정하고 전후에서 영향을 주고받은 신약성경의 책들을 추정하기 용이하도록 배려하였다.

2.7. 질문들

『러닝 바이블』이 다른 번역 성경과 완전히 다른 한 가지는 작은 단락 마지막에 몇 가지 성경 본문을 토대로 독자들에게 제기하고 있는 질문 부분이다. 그런데 단순히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차원이 아니라, 독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삶 속에서 나누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려는 질문들이 많다. 이렇게 의도된 질문들은 다분히 본 성경의 번역 목적과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성경이 염두에 두고 있는 다음과 같은 번역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

> 『러닝 바이블』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고, 나누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을 초대한다.

여기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번역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서로 공유하여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교회가 사분 오열되고 신자들마다 하나의 신앙을 공유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본 성경은, 일치된 신앙과 삶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훈할 수 있는 토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 질문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필자는 나름대로 교회의 성경공부에 활용하거나 청소년들이 그룹 활동에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래의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구절을 읽고 서로 삶을 나누며 상대방의 생각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은 그만큼 넓어질 것이다.

3. 평가

어떤 책이든지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물론 신구약성경의 독자는 신자들이다. 그런데『러닝 바이블』은, 세계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의 독자들을, 신자들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크나큰 장점이 있는 성경책이다. 물론 이 책은 미국성서공회에서 발행되었으며, 교회와 신자들을 목표로 출간된 책이지만, 기존의 성경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성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였던 초신자들까지도『러닝 바이블』을 통해서 흥미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확신한다. 그러므로 위에서 이미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한 것처럼, 본 성경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쉬운 번역으로 성경에 대해서 왕초보도 이해하기 쉽다.
둘째, 총천연색으로 상품가치가 있다.
셋째, 읽기에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다.
넷째,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
다섯째, 성서 지리에 대해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여섯째, 사진과 그림만으로도 간직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
일곱째, 부록에 있는 성경읽기표를 따라서 하루에 5분 읽으면 일년에 다 읽는다.

그럼에도,『러닝 바이블』은 또 하나의 전문적인 성경번역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장점은 제목만 나열하여도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으리라 짐작하는데, 단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아래와 같이 긴 설명을 하여야 할 것 같다.

첫째, 신약성경의 각 책에 대한 필수적인 개론이 너무 빈약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예를 들면,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각각에 대한 개론을 달아 주어서, 언제 어느 곳에서 기록되었으며 누가 어떤 신앙 공동체에게 기록한 복음서인지를 밝혀 줄 때, 독자들이 더 자세하게 본문의 내용을 실감하게 될 줄로 안다. 물론『러닝 바이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약성경을 강조하려는 차원에서 각 책의 간단한 개론을 사전에 독자들에게 요약적으로 소개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공감하면서도 독자들의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 있기 마련이다. 다시 말하자면, 독자들은 신약성경 각 책의 삶의 정황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신약성경의 각 책이 당대를 살아갔던 신앙인의 삶에 직결된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해결하였던 점을 중시함으로써, 오늘날의 독자들도 그것을 거울 삼아서 오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론은 단순히 각각의 책을 소개하는 정도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장에 대한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고자하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연 성경이 기록된 시기를 추정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인가?『러닝 바이블』이 신약성경의 시대에 대한 갖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풍부하게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필자는 반드시 각각의 책에 대한 역사적인 삶의 정황뿐만 아니라 그것의 대략적인 기록시기도 독자들에게 명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성경의 해석 방법은, (1) 교리적 해석과 (2) 역사적 해석과 (3) 목회적/신학적 해석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러닝 바이블』이 현대적 성경 번역의 특성을 살려서 쉬운 영어로 본문을 번역하고 있지만, 각 교단마다 다른 교리상의 미묘한 차이를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 교리적 해석을 지양하고 있으며, 각 교회의 전통의 차이에서 비롯된 상이함을 피해가기 위하여 목회적/신학적 해석을 지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본 번역서는 역사적 해석에 치중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지리적인 배경과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일반적인 배경과 당대의 풍속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풍부한 자료들과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정보 자료들이 성경 본문의 특수한 내용에 얼마나 직접적인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자면, 1808쪽에 로마 병정들이 당시 죄수들에게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과연 그 그림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마련된 나무 의자에 앉힌 자세로 두 발을 옆으로 모아서 발뒤꿈치와 복숭아뼈 사이에 못질을 하여 십자가에

달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그림을 보는 신자들마다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당시의 역사적 정황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처형도 그럴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역사적 해석이 지니고 있는 한계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해석은 교리적 해석과 목회적 신학적 해석을 도움을 받아서 항상 재정립되어야 한다.